



안개 뒤덮인 광주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가 '안개 도시'로 변했다. 전날 낮 최고기온(10.3도)과 이날 새벽의 기온(0.3도)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발생한 안개가 아파트 단지외와 관공서 등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외규장각 도서 297권 5월 이전 한국 온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오는 5월 이전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과 프랑스는 7일 자정 프랑스 파리 외교부 청사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반환하는 내용의 정부간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이 이뤄져왔으며 양측은 정부간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도서반환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양측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월 31일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을 완료한다는 데 정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도서반환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양측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월 31일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을 완료한다는 데 정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농림부의 딴지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못 믿어” J프로젝트 부동산구 채용역 의뢰

농림수산식품부가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부동산구 개발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용역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며 채용역의 의뢰를 계획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J프로젝트 내 부동산구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는 방안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와 협의 중이다. 부동산구는 14.18km에 테마박물관·골프장·위터파크·마리나·승마클럽 등이 들어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에이시회원권거래소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농림부는 특히 부동산구내 골프장수의 적정성 및 토지매입비 산출 문제 등을 담은 과업지시서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이달 중순 KDI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국

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의뢰해 결과보고서까지 제출받아놓은 상태여서 예산 낭비 및 딴지 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문광부는 2년 전인 2009년 11월 국토연구원에 부동산구 개발계획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근거로 “타당성이 있고 650억원의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농림부의 입장은 이같은 용역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제 3의 연구기관인 KDI에 다시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농림부측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보고서는 농림부 소속 간접직인 부동산구 부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보고 있다. 3.3㎡당 2만3000

원 수준으로 책정한 땅값이 농림부가 파악한 가격보다 절반 가량 낮다는 것. 따라서 650억 가량의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는 사업성 분석 결과도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림부측은 또 J프로젝트 부지 내 삼호지구(8.66km)와 구성지구(21.87km)에 들어서는 골프장만 198홀(18홀짜리 11개)이 들어서는 데, 부동산구에도 144홀(18홀짜리 8개)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도 지나치게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정부부처가 국가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을 못 믿겠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딴지 걸기나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사업에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데 따른 예산 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하지만 전남

도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검증 용역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가운데 2곳인 삼호·구성지구 개발사업을 오는 5월 착공할 방침이다. 2009년 10월 정부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삼호지구 개발계획은 이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레저투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이 현재 정부 부처간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다. 구성지구도 삼호지구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은 이미 정부 승인 절차를 통과했으며 일부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암군 초동방역 실패 시 키웠다”

전남도 감사결과...보성 오리농장 의심신고 긴장

전남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암군의 허술한 초동방역으로 확산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남도의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영암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7일 영암지역에서 발생한 AI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AI 최초 발생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이 실패했고 방역체계에도 많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30일 AI 의심 신고를 접수받은 뒤 8일이 지나서야 차단 방역에 들어가는 등 초동방역에 실패하면서 주변 농가로 AI가 확산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도 농장주에게 폐사한 오리를 직접 가져

오도록 하는가 하면,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에는 가축방역관이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암군은 관내 닭·오리 사육 농가 367개소 중 146개소(39.7%)에 만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방역활동에 허점을 드러냈고 철새도래지 인근 3km내 농가가 관리대상이지만 현황 파악조차 못해 누락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방역체계도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은 2년 전인 2008년에도 AI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방역 당국의 대응이 잘못됐다”면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영암군은 불가피했던 현장 상황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도 농장주에게 폐사한 오리를 직접 가져

오도록 하는가 하면,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에는 가축방역관이 상주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암군은 관내 닭·오리 사육 농가 367개소 중 146개소(39.7%)에 만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방역활동에 허점을 드러냈고 철새도래지 인근 3km내 농가가 관리대상이지만 현황 파악조차 못해 누락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방역체계도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은 2년 전인 2008년에도 AI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방역 당국의 대응이 잘못됐다”면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영암군은 불가피했던 현장 상황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도 농장주에게 폐사한 오리를 직접 가져

AI 철새 통해 감염 가능성 가장 크다

4월까지 추가 발생 우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국내에 유입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는 철새의 배설물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철새 도래철이 끝나는 4월까지의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차단방

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실·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전국 4130여곳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실태를 21일부터 내달 말까지 정부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매몰지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3000여곳을

분기당 1회 조사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이날 HPAI 역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2008년 국내에서 HPAI가 발생했을 때 야생조류에서 폐사를 일으키거나 HPAI 바이러스가 분리된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7개 시·도의 다양한 종류의 철새에서 HPAI 바이러스가 총 17건 분리됐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개혁 연기 없어

광주·전남교육청은 7일 “광주·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개혁을 연기한 학교는 없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6일 구제역이나 AI 발생 지역의 초·중·고교 개혁을 연기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으나, 이같은 조치를 취한 학교는 없다. 도교육청은 영암·화순 등 6개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으나, “AI가 소강상태인 데다 확산 조짐이 없어 개혁 연기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정상 개학하기로 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일정에 따라 개혁하도록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연인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플랜지 : 숙박권 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원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연회장 완비)
히든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enkhotel.co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바우처 무료 영재교육

건강보험 4인 기준 113,544원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 아동 바우처 프로그램 및 아동 장학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 : 7세 ~ 초6(건강보험료 납입수가 기준, 건강보험공단확인증 제출)
- 교육비 : 무료 국비 또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 100% 지원 (단, 교재 및 교구비 수익자 부담)

총 4개의 교육과목 중 2개 과목목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사교력 영재수학교재 및 교구
2. 창의력 실험과학교재 및 교구
3. 영재 기예 교재 및 교구
4. 집중력 정·속독교재 및 교구

바우처 신청 및 교육 절차

1.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2. 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3. 바우처 영재교육
4. 접수·관리

※ 1년간 교육비 무료지원

지부 및 지정교육원 모집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는 21C 문화교육사업의 선두주자로 건전한 교육, 문화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바우처 영재교육사업과 장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부 및 지정 교육원을 아래와같이 모집합니다.

지부모집부문
북부1지부(용봉, 동림, 오치, 문흥·원로) 북부2지부(일곡, 매곡, 양산·원로) 북부3지부(두암, 중흥) 남부1지부(진월, 봉선·원로) 남부2지부(주월, 월산) 서부1지부(지평, 화정·원로) 서부2지부(금호, 풍암) 광산1지부(첨단, 수원지구·원로) 광산2지부(도산, 월곡·원로) 광산3지부(신가, 신정) 동구지부, 화순지부

지정교육원모집부문
광주시내 전 학원·광주시내 초등학교 기준 1개 지정원
모집기간! 2011-2.07~2.11 보낼곳 : purdu@naver.com *매일 신청하시면 개별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 광주일보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진흥회